

## 근로소득세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시간에 미치는 영향

**수행과제명** ... 조세제도의 성인지적 분석: 개인소득세와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 김 영 숙 연구위원

☎ Tel: 02-3156-7123, ✉ e-mail: youngkim@kwidimail.re.kr

### 요 약

분석결과, 소득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기혼여성은 기존의 가처분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늘리지만,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소득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세액이 증가하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유인으로 자녀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을 제안함

### 1. 배경 및 문제점

무급가사노동의 일차적인 책임은 여성에게 있고 이는 여성의 생애주기 에 있어서 “비용”으로 작용하여 조세정책의 주요 변수로 기능할 수 있음. 무급가사노동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무급노동이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중 상당부분을 차지함. 우리나라 여성의 무급가사노

동 시간은 2009년 현재 남성의 4~6배로, 1999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남성보다 많은 상황임

〈표 1〉 성별 가사활동시간(모든 행동)

(단위: 시간:분, 남성=1)

행동별	성별	1999년	2004년	2009년
가정관리	전체	1:31	1:27	1:28
	여성	2:41	2:29	2:27
	남성	0:20	0:22	0:27
	여성/남성	8.05	6.77	5.44
가족보살피기	전체	0:26	0:27	0:28
	여성	0:44	0:43	0:44
	남성	0:09	0:10	0:11
	여성/남성	4.89	4.30	4.00

주: 평균시간, 요일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보고서」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여성배우자는 유급근로 이외에 무급가사노동을 함께 수행하거나 유급가사도우미를 고용함으로써, 가구소득이 동일한 홀벌이 가구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급가사노동과 관련된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그러므로 각종 공제제도의 효과를 포함하는 근로소득세가 2차 소득자의 노동공급시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면, 소득세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본 연구에서는 가구 및 개인의 조세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재정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세 이외에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시간에 미치는 다른 변수<sup>1)</sup>의 영향을 통제한 후, 소득세와 2차 소득자의 노동공급시간과

1) 관련 연구에 나타난 변수(연령, 자녀 수 및 연령) 이외에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 직종(직장의 종류, 규모, 자영업 여부 등) 및 가구 자산수준도 설명변수에 포함시킴.

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함

## 2. 조사 및 분석결과

### 1) 분석방법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은 기혼여성이 속해 있는 가구 및 가구의 특성에 크게 의존함. 특히 자녀와 관련된 요인(영유아 유무, 보육비용 등)은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관련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가구 및 개인소득과 근로소득세는 개인의 노동공급시간에 대해 외생변수가 아니므로 내생성의 통제가 필요함. 본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인 소득세 최종결정세액 역시 2차 소득자의 노동공급시간과 내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함. 이와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추정방식이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즉 실효세율과 관련이 있으나 2차 소득자의 노동공급시간과 관계가 없는 변수를 활용한 분석됨. 주로 표본선택모형(sample selection), 통제함수추정(control function estimator) 등이 사용됨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의 경우, 도구변수, 즉 소득세와 관련이 있으나 2차 소득자의 노동공급시간과 상관관계가 없는 변수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함. 그러나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추어진 변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합한 도구변수를 찾아내는 작업은 쉽지 않음. 한편, 문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본선택모형의 경우, 추정과정이 복잡하고 추정이 성공하는 경우도 드뭄. 또한 함수의 형태를 미리 가정하는 기존의 노동공급함수 추정방식에 따르면 함수 형태에 대한 가정에 따라 임금탄력성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변수간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함수추정법(control function estimator)과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으로 재정패널자료를 분석하고자 함

통제함수추정법은 종속변수와 내생성을 가진 설명변수가 있는 경우, 이들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임

기혼여성  $i$ 의 노동공급시간을  $y_{1i}$ , 소득세 이외에 노동공급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x_{1i}$ , 소득세를  $y_{2i}$ , 소득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x_{2i}$ 라고 하면, 통제함수추정법은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음

$$\begin{aligned} y_{1i} &= \beta_1 + \beta_{x_1} x_{1i} + \beta_{y_2} y_{2i} + \beta_v \hat{v}_i + u_i \\ y_{2i} &= \beta_2 + \beta_{x_2} x_{2i} + v_i \end{aligned}$$

먼저  $y_{2i}$  방정식을 추정하여  $\hat{v}_i$ 를 구한 후에, 이를  $y_{1i}$  방정식의 설명변수로 포함시킴으로써  $y_{2i}$ 의 내생성을 통제<sup>2)</sup>하는 방법임. 기존의 도구변수를 이용한 방법에 비해 이 추정방법은 도구변수의 수에 제약이 없다는 장점을 가짐. 또한  $y_{1i}$  방정식의 설명변수로  $y_{2i}$  뿐만 아니라  $y_{2i}$ 와 다른 변수의 교차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본 연구에서도 소득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75세 이상 부양자 수, 소득세×미취학 자녀 수, 소득세×미취학 자녀 수, 소득세×가구소득구간별 더미<sup>3)</sup>를 사용함으로써, 기혼여성의 소득세가 노동공급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세밀하게 볼 수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통제함수추정법으로 소득세와 기혼여성의 노

2) 위의 두 식은  $COR(\beta_v \hat{v}_i + u_i, v_i) \neq 0$ 이므로 내생관계에 있다. 그러나 여기서 설명한 통제함수추정법에 의해  $\beta_v \hat{v}_i$ 를 걸러내고 나면  $COR(u_i, v_i) = 0$ 이 되므로 내생성은 통제된다.

3) 수식으로는  $\beta_{x_{1y_2}} x_{1i} y_{2i}$ 로 표현할 수 있다.

동공급시간과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과세구간의 단절점을 활용하는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을 적용함

회귀단절모형은 주요 설명변수인 비모수추정모형의 일종으로 단절점 주위의 자료만을 취하여 분석하는 방법임.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연속 변수이지만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급격히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값에서 비약, 혹은 단절이 생길 수 있음. 회귀단절모형에서는 단절점 주위의 표본은 랜덤하게 분포한다는 가정 하에 함수의 형태를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비모수추정이 가능함. 이 방법은 표본선택모형보다 추정이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진다<sup>4)</sup>. 위에서 설명한 모형을 회귀단절모형으로 확장시키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음

$$\begin{aligned} y_{1i} &= \beta_1 + \beta_{x_1} x_{1i} + \beta_{y_2} y_{2i} + \beta_v \hat{v}_i + u_i \\ y_{2i} &= \beta_2 + \beta_d d_i + \beta_{x_2} x_{2i} + v_i \\ d_i &= d_i(w_i) = 1(w_i > c) \end{aligned}$$

추가된 변수를 살펴보면,  $d_i$ 는 과세구간 상의 단절점  $c$ 보다 소득( $w_i$ )이 높은 경우 1을 적용하는 더미 변수로, 단절구간 구분 변수가 됨. 본 연구에서는 이 모형을 기혼여성 뿐만 아니라 기혼남성을 대상으로도 추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고자 함

## 2) 분석 자료 및 변수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개인소득, 공제 관련 항목들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포함된 재정패널조사자료임. 국세청 자료를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정패널조사자료는 가구 및 개인단위의 조세 및 지출에 관한 포괄적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음. 2008년부터 5,014가구를 조사하였고 현재 3차년도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음

4)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Lee and Lemieux(2010) 참조.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소득세 최종결정세액은 세전소득에 법정세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훨씬 낮는데, 이는 각종 공제제도와 면세점제도, 조세 특별조치 등에 기인함. 본 연구를 위해서는 소득 및 세금자료에 미싱자료가 비교적 적은 2010년 조사자료를 분석하였고, 총 4,830가구 자료 중 기혼가구(유배우) 2,940가구를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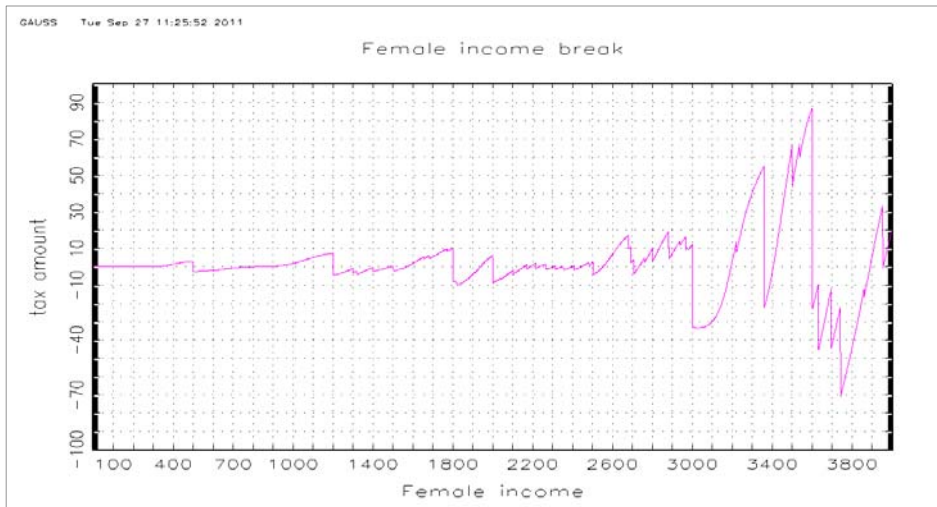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추정하는 회귀단절모형의 경우, 적용하기에 앞서 모형의 가정이 적합한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함. 즉, 먼저 단절점  $c$ 를 찾은 후,  $c$  주위의  $w_i$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루며 랜덤하게 분포하는지, 그리고 단절점 주위에 추정하는 데 충분한 양의 샘플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단절점 근처에서 표본이 랜덤하게 분포하지 않는다면, 이는 소득을 콘트롤해서 단절점 이하, 혹은 이상에 분포할 것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되므로 회귀단절모형의 기본가정에 위배되기 때문임

재정패널자료에서는 과표소득이 아닌 세전소득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분석 방법에서 설명한 단절점  $c$ 를 명시적으로 찾을 수 없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액( $y_{2i}$ )을 세전소득( $w_i$ )에 대해 비모수회귀(kernel nonparametric regression)함으로써 단절점을 찾고자 하였음. 추정식<sup>5)</sup>은 다음과 같음

$$\frac{\sum_i K((w_i - w_0)/h)1[w_i \geq w_0]y_{2i}}{\sum_i K((w_i - w_0)/h)1[w_i \geq w_0]} - \frac{\sum_i K((w_i - w_0)/h)1[w_i < w_0]y_{2i}}{\sum_i K((w_i - w_0)/h)1[w_i < w_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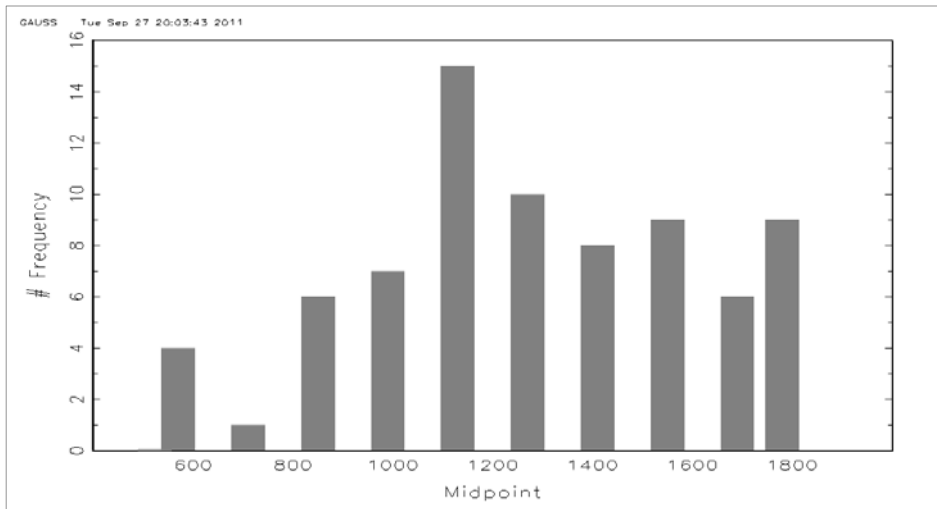
먼저 여성의 경우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음. 분석 자료의 여성 근로소득은 95%가 1800만원 이하로 분포하고 있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91%에 달함. 따라서 2000만원 이상의 소득에서 나타나는 단절점은 아웃라이어라고 한다면, 여성 근로소득의 단절점은 500만원, 1200만원, 1800만원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5)  $K$ :kernel. Lee(2009), p.356 참조.



[그림 1] 여성 근로소득의 단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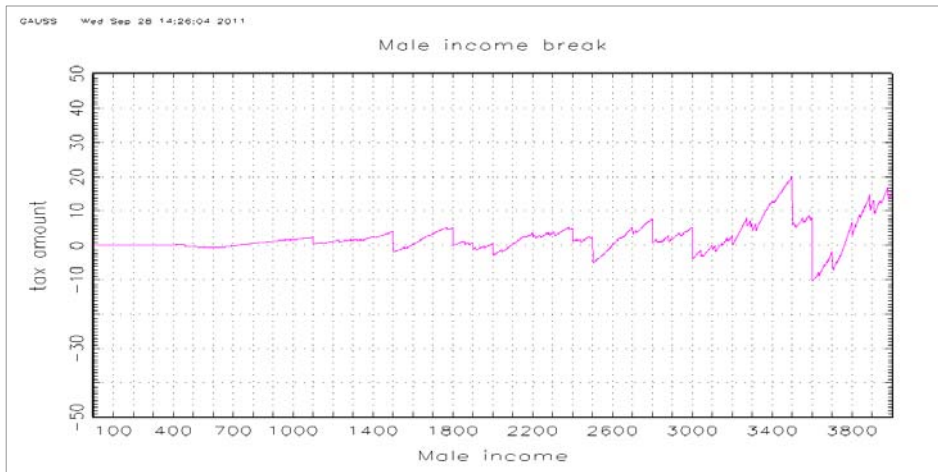
세 개의 단절점 중 500만원의 경우 200만원~800만원 사이에 분포하는 표본은 12개에 지나지 않아 추정이 불가능했음. 1200만원을 단절점으로 보는 경우, 이전 단절점 500만원~이후 단절점 1800만원 사이에 75개의 표본이 분포하며, 주위의 소득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살펴본 결과 좌우 대칭의 정규분포 형태로 나타나 회귀단절모형의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음. 마지막 단절점인 1800만원의 경우, 1300만원~2100만원 사이에 분포하는 표본은 30개에 지나지 않아, 500만원을 단절점으로 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정이 불가능했음. 그러므로 여성 근로소득의 경우 1200만원을 단절점으로 보고 주위의 표본을 대상으로 모형을 추정하였음



[그림 2] 연 근로소득 1200만원 주위의 소득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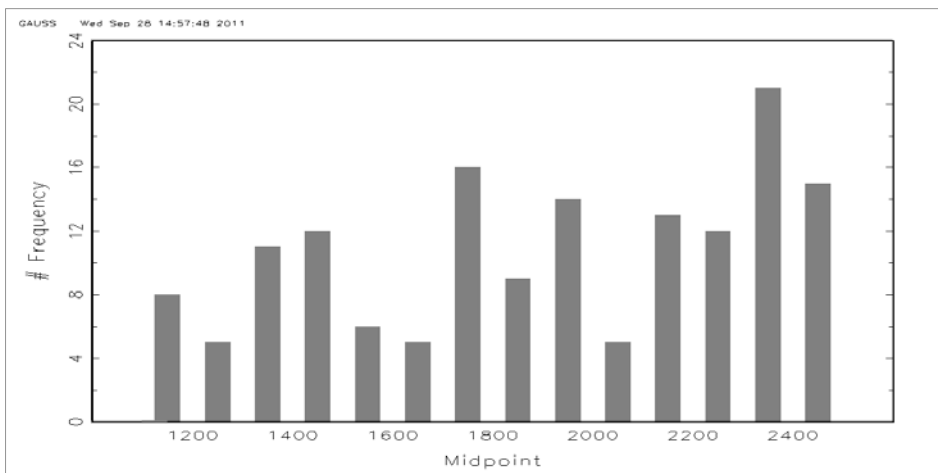
남성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전체의 59%로 여성보다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근로소득 수준이 높아, 여성의 경우보다 더 많은 단절점을 찾을 수 있었음. 분석 자료의 남성 근로소득은 95%가 6985만원 이하로 분포하고 있으므로 7000만원 이상의 소득에서 나타나는 단절점을 아웃라이어라고 하면,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남성 근로소득의 단절점은 1500만원, 1800만원, 2500만원, 28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3600만원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3] 남성 근로소득의 단절점

이 중 1500만원, 3500만원, 3600만원의 경우 표본의 수가 각각 55개, 54개, 48개로 너무 작아 추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1800만원을 단절점으로 보는 경우, 1100만원~이후 단절점 2500만원 사이에 152개의 표본이 분포하며, 주위의 소득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살펴본 결과 좌우 대칭의 정규분포 형태로 나타나 회귀단절모형의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음



[그림 4] 연 근로소득 1800만원 주위의 소득분포

나머지 세 개의 단절점 2500만원, 2800만원, 3000만원의 경우, 표본의 수는 모두 충분했으나 그림에서와 같이 표본이 단절점을 기준으로 비대칭 분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회귀단절모형으로 추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음. 그러므로 남성 소득의 경우 1800만원을 단절점으로 보고 주위의 표본을 대상으로 모형을 추정하였음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의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음. 기혼여성과 남성의 경우가 각각 다른데, 단절점이 각각 1200만원과 1800만원으로 다르기 때문임. 단절점이 남성의 경우가 더 높은 만큼, 대부분의 변수에서 남성의 경우가 약간 더 높거나 크게 나타났음. 그러나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기혼여성의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석자료에서 기혼여성은 모두 2차 소득자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2〉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기혼여성의 경우)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내생변수							
주당평균근무시간( $y_1$ )		시간		43.48	7.00	25.00	63.00
연간 근로소득세액( $y_2$ )		만원		5.71	14.30	0.00	80.00
연간근로소득( $w$ )		만원		1,290.87	329.36	545.00	1,800.00
구간구분 변수( $d=1$ (연간소득)1200만원)		더미		0.69	0.46	0.00	1.00
외생변수( $x$ )							
개 인	연령		세	42.99	8.91	25.00	65.00
	대학교 재학 이상 교육 수준 더미		더미	0.33	0.48	0.00	1.00
가 구	월평균 가구소득 더미	200-399만원	더미	0.47	0.50	0.00	1.00
		400-599만원	더미	0.29	0.46	0.00	1.00
		600만원 이상	더미	0.03	0.16	0.00	1.00
	월평균 보육비용지출비율		%	1.57	4.66	0.00	20.83
	미취학 자녀 수		명	0.27	0.55	0.00	2.00
	75세 이상 가구원 수		명	0.05	0.23	0.00	1.00

주:  $y_1$ 과  $y_2$ 는 수량 변수로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모두 로그를 취함

〈표 3〉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기혼남성의 경우)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내생변수							
주당평균근무시간( $y_1$ )			시간	50.26	12.93	15.00	98.00
연간 근로소득세액( $y_2$ )			만원	8.23	16.79	0.00	120.00
연간근로소득( $w$ )			만원	1,913.55	409.12	1,146.00	2,500.00
구간구분 변수( $d=1$ (연간소득)1800만원)			더미	0.66	0.48	0.00	1.00
외생변수( $x$ )							
개 인	연령		세	45.90	11.06	28.00	73.00
	대학교 재학 이상 교육 수준 더미		더미	0.49	0.50	0.00	1.00
가 구	월평균 가구소득 더미	200-399만원	더미	0.47	0.50	0.00	1.00
		400-599만원	더미	0.05	0.22	0.00	1.00
		600만원 이상	더미	0.01	0.08	0.00	1.00
	월평균 보육비용지출비율		%	2.56	6.65	0.00	37.96
	미취학 자녀 수		명	0.55	0.80	0.00	3.00
	75세 이상 가구원 수		명	0.05	0.24	0.00	2.00

주:  $y_1$ 과  $y_2$ 는 수량 변수로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모두 로그를 취함

### 3) 분석 결과

연간근로소득세액을 피설명 변수로 하는 제1단계 분석결과는 다음 <표 4>와 같이 나타났음. 도구변수의 역할을 하는 구간구분 변수는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의 경우 모두에서 유의한 정의 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혼남성의 경우 기혼여성의 경우와 달리 연령이 유의한 정의 효과를 갖는 반면, 월평균 보육비용지출비율은 모형에서 탈락되었음

〈표 4〉 제1단계 추정결과

변수명	기혼여성				기혼남성			
	추정치	P> t	95% 신뢰구간		추정치	P> t	95% 신뢰구간	
피설명변수								
연간근로소득세액( $y_2$ )								
설명변수								
상수	-0.44	0.61	-2.15	1.26	-0.80	0.16	-1.92	0.32
연령	0.01	0.55	-0.02	0.05	0.03	0.01	0.01	0.05
대학교 재학 이상 교육 더미	-0.18	0.56	-0.81	0.44	0.19	0.39	-0.24	0.62
월평균 보육비용지출비율	0.04	0.23	-0.02	0.10				
구간구분 변수( $d$ )	1.21	0.00	0.64	1.78	1.01	0.00	0.56	1.46
F값(P-value)	4.74(0.00)				7.42(0.00)			
표본 수 <sup>6)</sup>	75				152			
Adj $R^2$	0.21				0.13			

이와 같이 제1단계에서 추정한 잔차항( $\hat{v}$ )을 설명변수로 포함시킨 제2단계 추정결과는 다음 <표 5>와 같음.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의 경우 잔차항( $\hat{v}$ )의 계수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주당평균근무시간( $y_1$ )과 연간근로소득세액( $y_2$ ) 간에 내생성이 존재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음을 증명하였음

6) 회귀단절모형은 단절점 주위의 자료만을 취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표본이 아닌 한 단절점 주위의 표본의 랜덤 분포를 위해 표본의 크기를 희생할 수 밖에 없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표본수가 소수인 것은 분석방법론 상의 한계이다.

〈표 5〉 제2단계 추정결과

변수명	기혼여성				기혼남성			
	추정치	P> t	95% 신뢰구간		추정치	P> t	95% 신뢰구간	
피설명변수								
주당평균근무시간( $y_1$ )								
설명변수								
소득세액( $y_2$ )	0.13	0.01	0.04	0.21	-0.10	0.02	-0.18	-0.02
소득세액( $y_2$ ) 교차항								
×75세 이상 부양자 수					0.23	0.02	0.05	0.42
×미취학자녀 수	0.05	0.15	-0.02	0.11	0.01	0.42	-0.02	0.05
×월평균 가구소득 더미								
200-399만원	-0.07	0.06	-0.14	0.00				
400-599만원	-0.09	0.03	-0.17	-0.01				
600만원 이상	-0.15	0.03	-0.27	-0.02				
상수	4.00	0.00	3.78	4.22	4.01	0.00	3.82	4.19
연령	-0.01	0.02	-0.01	-0.00	0.00	0.78	0.00	0.00
대학교 재학 이상 교육 더미	-0.06	0.20	-0.14	0.03	-0.03	0.45	-0.11	0.05
월평균 보육비용지출비율	-0.01	0.27	-0.01	0.00				
1단계 추정 잔차항( $\hat{v}$ )	-0.06	0.08	-0.13	0.01	0.09	0.04	0.01	0.17
F값(P-value)	2.08(0.09)				2.21(0.09)			
표본 수	75				152			
Adj $R^2$	0.22				0.08			

본 연구의 관심변수는 소득세액이므로, 소득세액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정의 값을 취하느냐 혹은 부의 값을 취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이 가  
능함. 소득세액의 증가는 임금 감소를 의미하므로 소득세액의 증가가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하락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같음

미시경제학에서 노동공급의 의사결정은 일(소비)과 여가에 시간을 배분

하는 근로자의 선택으로 설명됨. 노동공급곡선은 근로자의 선호구조<sup>7)</sup>에 따라 우상향하기도 좌상향하기도 하는데, 이는 임금상승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때문임.

먼저 임금상승의 대체효과는 다음과 같음. 임금이 상승하면 소비에 비해 여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여가를 줄이고 소비를 늘릴 것임. 즉, 임금이 상승(하락)하면 노동공급은 증가(하락)함. 반면 소득효과는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옴. 임금이 상승하면 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득의 증가분을 사용하여 소비와 여가 모두 더 많이 소비하려 할 것임<sup>8)</sup>. 여가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노동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임금이 상승(하락)하면 노동공급은 하락(상승)함.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임금 상승에 의해 노동공급시간이 증가할 것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시간은 감소할 것임

이와 같은 경제학적 논의에 따라 소득세액의 추정계수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소득세액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부의 값인 경우에는, 소득세액의 증가에 따라 임금이 하락하면 근로자는 대체효과에 의해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시간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함. 반면 소득세액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정의 값인 경우에는, 소득세액이 증가하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득세액 상승 이전의 가처분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여가를 줄이고 노동공급시간을 늘린다는 소득효과에 따른 해석이 가능하게 됨

분석 결과, 소득세액의 계수를 살펴보면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의 경우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음. 기혼여성의 경우 소득세액은 주당평균근무시간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하락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 큼을 알 수 있음. 즉, 소득세액 상승 이전의 가처분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여가를 줄이고 노동공급시간을 늘리는 소득효과가 더 강해짐을 알 수 있음

7) 일과 여가에 대한 무차별 곡선으로 표현된다.

8) 여기에는 소비와 여가가 모두 정상재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소득세액의 교차항을 살펴보면,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세액이 주당평균근무시간에 미치는 정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음.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비해 더 높아질수록 소득세액은 주당평균근무시간에 유의한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미취학자녀가 있거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임금하락의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더 큼을 알 수 있음. 즉, 가치가 높아진 소비를 줄이고 여가를 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부분의 자녀돌봄노동이 여성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기혼여성의 대부분이 2차 소득자임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음

기혼여성의 경우와 달리 기혼남성의 소득세액은 주당평균근무시간에 유의한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혼남성의 경우에는 임금상승의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소득세액 교차항에서 75세 이상의 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액이 주당평균근무시간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기혼남성은 75세 이상의 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공급시간을 늘림으로써 소득세액 상승 이전의 가처분소득 수준을 유지하려는 소득효과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소득세액의 상승으로 증가한 지출을 보상하기 위해 노동공급시간을 늘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러나 기혼여성의 경우와는 달리 미취학자녀의 존재여부와 가구소득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의 경우 연간근로소득 1200만원, 남성의 경우 1800만원 근처의 자료로 분석한 결과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소득계층의 개인에게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결과라는 것에 본 연구의 한계가 있음

### 3. 정책제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조세제도를 통한 재정적 유인은 세 가지, 즉 성별차등세율, 과세단위의 개선, 그리고 자녀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으로 구분됨

첫 번째, 성별차등세율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 즉,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혼여성에 대하여만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성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

두 번째, 과세단위에 관한 논의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재정적 유인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과세단위를 개선하여 소득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과 이것이 각 소득수준, 가구유형에서 노동공급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임. 예를 들면, 선택적 2분2승제의 경우 맞벌이 가구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득세는 훨씬 덜 내지만, 동일 제도 내에서 소득이 증가할 때 한계세율도 증가한다면 노동공급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임

마지막으로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음.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유보임금이 높은 기혼여성의 특성에 주목하여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는 여성에 대해 그 비용을 감해주는 방안임. 이는 경제활동 참여의 직접적인 유인이 되고,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기혼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준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게 됨

마지막으로, 자녀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 연



결됨. 즉, 소득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기혼여성은 기존의 가처분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공급시간을 늘리지만,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소득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녀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재정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기혼여성이 포함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세액이 증가하면 노동공급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 결과는, 조세제도와 관련된 재정적 유인이 중산층 이상의 유휴노동력을 시장에 나오게 만드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요약하면 자녀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이미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노동공급이 가능하지만 근로활동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으로 인해 세후소득이 낮기 때문에 노동공급을 하지 않는 중산층 홀벌이 가구의 기혼여성에게는 경제활동 참여의 재정적 유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현재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기본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 및 자녀양육공제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즉,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sup>9)</sup>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양자<sup>10)</sup>로서 20세 이하인 사람에게는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sup>11)</sup>

그리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2명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① 거주자의 직계비속

②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 중에 출산한 자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한특별법에 따라 입양한 입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11)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sup>12)</sup>

또한, 기본공제대상자가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로 1인당 100만원의 자녀양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sup>13)</sup>

그러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이와 같은 세제지원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소득공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데 있음. 소득공제제도는 기본적으로 지원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급여가 적어 한계세율이 낮은 기혼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자녀양육공제 및 교육비공제와 유사한 성격의 자녀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즉, 17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에 대하여 1인당 \$1,000를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음<sup>14)</sup>

이와 같은 세액공제방식은 우리나라의 소득공제방식보다는 그 금액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한계세율이 낮은 여성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부여함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소득공제방식보다는 세액공제방식이 기혼 여성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 등과 같이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세액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문제인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첫째, 미국의 경우처럼 일정한 연령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12)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1항.

13)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4호.

14)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24.

둘째, 근로소득수준 또는 육아비용에 따라서 세액공제액을 달리 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는 미국의 경우처럼 일정한 연령 이하의 직계비속 등의 수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근로소득수준 등에 따라 세액공제방법을 달리 하는 것은 소득공제방법과 마찬가지로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임

#### 4. 기대효과

이와 같은 자녀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은 공제액을 전체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수입을 감소시킬 위험도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성장속도에 비해 정체되어 있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세수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